

언제부터인가 금융업과 보험회사의 광고가 꽤 늘었다.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를 들으면 세상이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광고는 성우의 내레이션과 짝맞춘 효과음으로 라디오라는 청각매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새 차를 사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몇 번의 접촉 사고를 당할 것이고(끼익), 차에 열쇠를 두고 내리는 일도 있을 것이며(까악),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꽝)”가 그 내용. 자동차를 사는 일이 이미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첫 단계라니 끔찍하지 않은가. 자동차 광고라면 절대 이런 접근을 할 리 없지만 보험회사 광고기에 이런 서술이 가능하다.

“현대사회는 위험의 분배사회다”

유동근, 전인화 부부가 등장하는 삼성화재 광고와 동양화재의 광고도 돌발적인 사고상황과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LG화재의 광고는 카레이싱 장면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험 아줌마의 대인 판매(personal selling)에 의존하던 보험회사의 광고가 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증권, 투신사들의 광고전도 불이 붙은 상태이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들의 광고도 방송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재벌 기업의 생명보험업 진출이 늘고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 뛰어들면서 각 보험회사들이 치열한 서비스와 홍보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늦어지고, 보험회사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 확률도 증가한다. 근대화의 대가로 우리사회는 일찍이 ‘위험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회는 더욱 위험해진다. 아침저녁 건너다니는 성수대교와 백화점이 무너지는가 하면 아이들과 청소년의 캠핑 장소에서 대형화재가 난다. 위험은 곳곳에 있다. 필연적인 위험들과 더불어 사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새물결)는 현대사회를 ‘위험의 분배사회’라고 지적한다. 이 위험은 물질적인 결과물뿐만 아니라 노동과 개인, 가족·성별과 같은 사회적인 불평등과 개인주의화 또한 포함된다. ‘실존의 모든 틈새에 불확실성을 가져온’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원인은 더이상 자연에 있지 않다. 때문에 위험의 결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가 제안하는 위험사회의 대안은? 그것은 성찰적 근대화다. 지식인과

‘위험사회’를 지탱하는 보험 마케팅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보험업계의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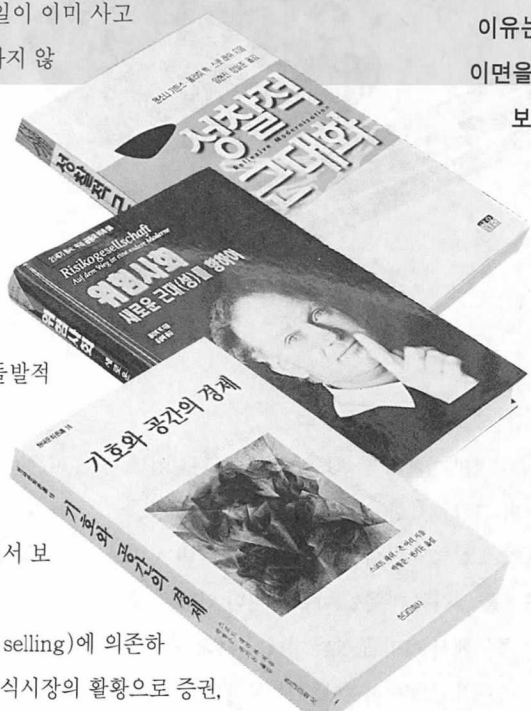
최근 보험회사의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 보면 좀더 근원적인 문제의식과 만나게 된다. 보험광고의 증대는 근대화의 대가로 우리가 위험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테크노크라트들의 성찰성이 새로운 근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공영역’과도 연결되며 앤서니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한울)라는 책에서도 깊게 다뤄진다. 스코트 래쉬의 《기호와 공간의 경제》(현대미학사)도 현대사회의 여러 특성과 성찰적 근대화의 중요성을 강론한 책이다.

병주고 약주는 상품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지식인들의 논의와 더불어 실생활에서는 보험 마케팅이 이 위험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차를 사고’ 그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산다’. 점점 세분화, 다양화한 맞춤형 상품이 돼가는 보험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고안한 제도지만, 위험사회를 조장한 근대화가 주는 ‘병주고 약주는’ 상품인 셈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험원리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야기되고 통계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대비를 위해 고안된 사회계약 제도다. 사회적 책임·보상·예방 등을 위한 규칙 체계인 것이다. 그러나 핵이나 화학, 유전학 기술 등의 폐해에 부딪힐 때 보험이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 그야말로 보상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보험되지 않는 사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대로라면 미래에는 생존권이 상품이 될지도 모른다.●



《성찰적 근대화》
앤서니 기든스 외 지음
임원진 외 옮김
한울/A5신/400면/12,000원

《위험사회》
울리히 벡 지음/홍성태 옮김
새물결/A5신/384면/18,000원

《기호와 공간의 경제》
스코트 래쉬 외 지음
박형준 외 옮김
현대미학사/A5신/510면/20,000원